

# 차기 국회의장 선거 ‘조정식 vs 박지원’ 전쟁 시작됐다

## 심층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원 포인트’ 인사가 여의도 정가를 강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의 6선 중진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 정부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내년 국정 동력 확보와 지방선거 대비용 인사로 포장됐으나 정치권의 해석은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다. 바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장은 국가 이전 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이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차기 의장 유력 주자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특보’ 명함을 달았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의장 도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조정식 의원에게

李대통령, 조정식 정부특보 임명...친정체제 구축  
朴, 삼권분립·호남홀대론으로 ‘당원 포위망’ 확대  
당원 20% 룰·‘제2의 우원식 사태’ 가능성 변수

특보 타이틀을 준 것은 ‘이 사람이 나의 뜻이니 헛갈리지 말라’는 의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조정식 특보는 사무총장 시절 현재의 민주당 의석 지형을 짠 ‘공천 실무자’였다. 여기에 대통령의 공식적인 신임까지 더해지면서 친명계 주류는 물론 눈치를 보던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조 특보에게 급격히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반면, 이번 인사는 박지원 의원에게 절호의 반격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 측은 그동안 “할 말은 하는 강한 의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왔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인사를 그리로 조정식 의원

을 ‘대통령의 비서 의장’, ‘청와대 출장소장’이라는 프레임에 가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회의 자율성과 행정부 견제 기능을 중시하는 비주류 의원들과 소신파 의원들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변경된 경선 룰이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며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과거 의원들끼리 ‘밀실 담합’으로 의장을 뽑던 시절과는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만약 이번 특보 임명이 당원들에게 “당원 주권을 무시한 위로부터의 내리꽂기”로 인식된다면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더욱 박지원 의원

에게 쏠릴 수 있다.

지난 28일 인사의 숨은 뇌관은 ‘지역주의’다. 이 대통령 (경기), 조정식 정부특보 (경기 시흥), 이한주 정책특보 (경기연구원장 출신),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당·정·청의 핵심 포스트가 온통 ‘경기도 인맥’으로 채워졌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호남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데 핵심 인사는 경기도가 독식한다”는 소외론, 이른바 ‘호남인사 홀대론’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이 ‘호남 정치 복원’과 ‘지역 균형 인사’를 명분으로 내걸 경우 호남 지역구 의원 30여명이 전락적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수도권 비명계 의원들이 가세한다면 조정식 특보의 ‘조직력’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갖게 된다.

결국 이번 승부는 ‘조정식의 조직력’과 ‘박지원의 바람’의 대결로 압축된다. 대통령의 특보

임명은 조 의원의 조직력을 콘크리트처럼 굳히려는 강력한 승부수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명심’은 추미애 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는 대이변이 연출된 바 있다.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의장 선거의 특성상 의원들이 겉으로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기표소 안에서는 의회의 자존심이나 견제 심리를 발동시킬 수 있다.

여기에 제3후보인 순천 출신 김태년 의원의 행보도 변수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1차 투표 과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탈락 후보의 표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최종 승자를 결정짓게 된다.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의회를 안정적으로 장악하는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당원과 의회의 반발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지 2025년 말 ‘여의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李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정훈 “여수 부착 내 현수막만 훼손돼”

###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나주·화순)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어제 여수지역에 부착한 25곳의 새해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되고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수시에 공식 확인한 결과, 해

당 현수막을 관리하는 여수시가 취한 조치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특히 대다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정상적으로 게시된 상황에서 유독 신정훈의 현수막만 집중적으로 훼손되고 철거됐다는 점은 정치적 의도와 배후를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적이



고 집단적인 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는 불법 행위”라며 “관계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정치적 경쟁은 정당당한 정책과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여야, 희생자 추모...“진상규명 최선”

與 “비극 반복않게 제도 바로잡겠다”

국힘 “책임자 처벌 없는 현실 참담”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무안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까지 바로 잡겠다. 그것이 정치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가족 생계 지원과 심리치료, 돌봄 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겠다.

슬픔은 나누고 간절한 염원은 꼭 이뤄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사고 직후 진상·책임 규명, 신속한 항공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진상 규명은 끝나지 않았고 수사는 부진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입건됐지만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1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무엇이 그토록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파크골프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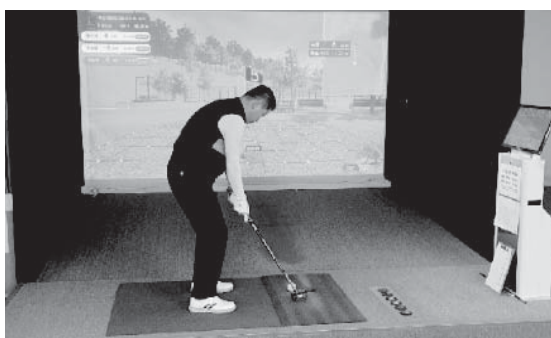
실내연습장 완비

##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